

청년주보

TRINITAS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7

그림 | 노젼마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탈출 34,4ㄱ-6.8-9

화답송 다니 3,52ㄱ,52ㄷ,53.54.55.56(◎ 52ㄴ)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2코린 13,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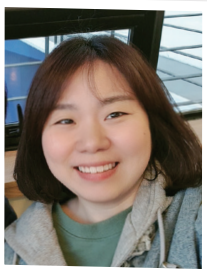
복음환호송 묵시 1,8 참조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요한 3,16-18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주님 안에서 여러 활동 중인

청년 인터뷰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전례연구부 김지혜 만나

Q. 신앙 안에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왕십리 성당 전례단원이고, 작년 가을부터 서울대교구 청년부 전례연구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사 전례 때 봉사하며 받은 위로와 사랑을 다른 청년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 저를 파견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Q. 전례연구부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봉사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님의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Q. 봉사를 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구가 있다면?

“너의 빛장은 쇠와 구리 너는 한평생 평안하라.”(신명 33,25)
흔들리고 낙약해질 때마다 저를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나부터 단단해야 다른 이를 위한 봉사도 진심을 다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지혜 만나 자매님의 이야기는 4면 신앙일기에서 계속됩니다.



상상 그 이상의 사랑



서희정 마리아
제17 지구 회장 / 방화3동 성당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들은 말인지 모릅니다. 들은 만큼 귀에도, 머리에도 각인된 말씀이었습니다. 가끔,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면 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 거지? 그저 막연히 짐작만 할 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가슴까지는 머물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책’을 하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기억에서부터 꼬물꼬물 기어 올라와 온몸과 맘을 지배했습니다. 자책도 악마의 유혹이라더니, 아닌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어찌나 집요하게 절 따라다녔는지, 성당으로 가는 발걸음도 멍청거리게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멍청거리는 발걸음을 꾸역꾸역 떼어 놓은 ‘그날’이었습니다. 주일 미사는 드려야지 싶어서 길을 방황하다 들어간 난생처음 가 본 성당이었습니다. 미사 시간이 남아서 성전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신부님께서 고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어 고해실에 빨간 불이 ‘땡’ 들어왔습니다. 그게 신호가 되었는지, 저는 고해성사의 순서를 밟아 나갔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고백기도와 통찰기도까지 마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심장을 부여잡는 심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고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해실은 고요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더 깊이 고요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제 목소리가 다시 제 귀로 돌아와서 찢끔찢끔 놀랄 정도였습니다. 죄를 모두 고하고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었습니다. 이윽고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심장이 또 한 번 찢릿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은 지점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악으로 빠지는 걸 보고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어진 신부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 죄로 아파하는 자매님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느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으니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제가 상상한 사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죄를 지은 나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느님.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파하는 날 보고 더 아파하시는 하느님. 껴끼끼 울며 고해실을 나온 저는 ‘자책’이라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주님이 머문 자리

코로나19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연은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언제나처럼 제 곁에 계시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그런 주님을 모른 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봅니다.

[박상순 갈리스토 / 신내동 성당]

『말씀가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고
성찰하는 길

사랑 ; 희생적이고 무조건
적인 사랑 -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

되찾은 아들의 비유 ;
아버지의 사랑

하느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십자가 사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완성

하느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속

하느님께로부터
파견 받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방법 ; 하느님께서 아들을 파견하심
목적 ; 세상의 구원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 인간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외아들, 곧 당신 품에 계신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 주심



designed by [Jesus] from Flaticon

구원자로서 아들

외아들 ; '유일한'이라는 의미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

외아들 예수님은 하느님의
본질을 공유하신 분,
하느님과 하나되는 분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16-18>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designed by [Judge] from Flaticon

파견과 심판

심판하는 자 ;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한 인간 자신의 선택

구원과 마찬가지로 심판
역시 지금 현재의 삶에서부터
이뤄지는 것

내 마음 밖에 다가온 말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느님이 나에게 회개하
라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
다. 하느님이 잘못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 엄한 분이라는 그
릇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
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사
랑, 진실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하느님을 신
뢰하며 희망하는 나 자신에게 있으며 선택은 현재의 삶에서부
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편집부 이진영 아눈시앗다]

말씀 심기

● 당신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인가요?

●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나요?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김지혜 안나 / 왕십리 성당

아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다. 열여덟 살 때였다. 엄마가 내 먹살을 낚아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동생이 아빠의 허리를 붙들었다. 할머니는 손을 다쳤다. 버둥거리다 힘이 빠진 아빠는 잠긴 방문 밖에서 울먹거렸다.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다. 울통불통한 서로를 참아주기엔 현실이 너무 냉혹했을 뿐이다. 한참 후 도착한 경찰관은 심드렁한 투로 “괜찮으신 것 같네요.”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갔다. 그는 틀렸다.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산산조각 나 있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신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 하느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지하기는커녕 탓할 대상조차 없었다. 목자 잃은 양들처럼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이듬해 엄마가 아빠를 떠났고 할머니도 따로 살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했다. 그렇게 각자 무덤 같은 방에 틀어박혀, 십 년 가까이 서로 미워하고 또 외로워했다.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결혼한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냉담했다. 어릴 적 잠깐 가본 성당은 20여 년간 구식 홈비디오처럼 화질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은은한 오르간 소리와 높은 천장, 갖가지 미사보, 창문 사이로 들어온 환한 빛, 내 손을 꼭 잡은 할머니. 삶이 구덩이 같을 때마다 그 기억을 달콤한 껌처럼 곱씹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여전히 엄마는 우울해하고, 아빠는 술을 마셨으며, 동생은 악몽을 꾸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내린 시련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원망은 순간의 분이나 풀어줄 뿐 쓸모없는 일이다.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위로해 줄 이’였다.

엄마가 다시 성당에 가자고 했을 때, 마치 계시처럼 들렸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입당성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파견성가가 끝날 때까지 울었다.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엔 안도감이 차올랐다. 미사 내내 온 마음으로 느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당신 앞에 수줍은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스물일곱 살 ‘세실리아’와, 할머니 손을 잡고 성당에 왔던 다섯 살 ‘안나’가 돌아오기를. 당신 곁에서 그토록 갈급하던 평안을 찾기를. 나는 곧장 연못 같은 주님 품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엄마와 나는 냉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성당을 다니면서 밝아지자, 아빠와 할머니도 위로받은 모양이다. 알고 보니 다들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서서히 괜찮아졌다. 부서진 관계를 재건하고 서로의 상처를 돌봤다. 요즘 엄마는 소녀처럼 웃고, 동생은 악몽을 꾸지 않는다. 아빠는 회사 근처에 혼자 살고 있다. 어버이날 선물로 에어프라이어를 보냈더니 비싼 것 아니냐며 무척 좋아했다. (가격은 비밀이다) 작년 겨울에는 대만으로 가족여행도 다녀왔다. 이 기적 같은 회복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나약한 인간을 얼마나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실감한다. 요즘의 나는 예전처럼 삶이 두렵지 않다. 주님이 곁에 계시는 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264차 선택 주말 접수

일정 7월 3일~5일 (2박3일)

장소 한남동 콘벤투알 수도원 금액 140,000원

대상 20세~35세(2001~198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접수 4월 29일(수) 14시~ (선착순 마감)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로 신청

265차 선택 주말 접수

일정 7월 31일~8월 2일 (2박3일)

장소 한남동 콘벤투알 수도원 금액 140,000원

대상 20세~35세(2001~198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접수 5월 27일(수) 14시~ (선착순 마감)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로 신청